

희생자 수습·유가족 인도 종료...사고원인 조사 본격화

179명 오늘까지 인도...사고기 엔진 조사 위해 격납고 이동 상황 종료 후에도 정부 차원 상설 지원단 꾸려 유족과 소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수습과 유가족 인도 절차가 종료된 데 따라 사고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월 중순께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항공 사고 피해 수습 및 유가족 지원 추진단' (상설 지원단)을 꾸려 유가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는 5일 무안국제공항 2층 희생자 유족 대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일까지 모든 희생자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희생자 총 179명 중 176명의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3명은 유족의 개인

적인 사정으로 하루 뒤인 6일 희생자를 인도받기로 했다.

희생자 150여명의 유류품이 확인돼 이 중 128명의 유류품 204점이 유족에게 인도됐으며, 남은 유류품 600여점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항에 남겨진 희생자 자동차 중 5대는 인도 완료됐다.

사고 현장 수습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원인 분석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까지 꼬리 날개 등 항공기 잔해와 인근 갈대밭 등을 대상으로 수색 작업을 마친 결과 희생자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감식 수사와 관련해 소규모 수색 작업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항공기 엔진 2기는 인양돼 조사를 위해 격납고로 옮겨졌으며, 꼬리 날개와 랜딩 기어 등은 현장에 남겨둔 채 조사 중이다.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져있는 사고기 잔해를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사고기에서 확보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는 지난 4일 녹취록 작성까지 마쳤으며, 일부 부품이 유실된 비행기록장치(FDR)는 6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는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주요계통의 정비이력 적정성 및 비행전후 점검실태, 운항 및 정비기록관리, 정비인력 관리 분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김포-제주 등 전국

13개 공항 등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현장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유족 지원과 소통 창구는 남겨진다.

정부는 이날 중으로 정부차원의 상설 지원단 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현장에서 운영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당분간 유지하며, 정부 차원의 상설 지원단이 발족하면 유족 지원 업무를 이관한다.

무안공항에 설치된 245개 텐트형 재난구호 쉼터(임시 숙소)는 정리하되, 유족이 찾아와 쉬어갈 수 있도록 방역·정소 작업을 거쳐 일부 쉼터를 남겨 놓을 방침이다.

유족의 편의를 위해 장례 등 절차는 간소화한다. 유류품 인도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기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도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하기로 했다. 각종 서류는 유족과 매칭된 전남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 지역 화장장 가동과 운영시간도 광주·전남 하위 평균 38분에서 55분으로, 전남은 99분에서 124분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토부는 화장장에 참사 희생자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힘든 과정에서 잘 인내하고 협조해주신 여러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해야 할 것과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과정이 되면 장관으로서도 국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유족 편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김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국가 애도기간 끝났어도...추모 행렬 끝이 없다

전국 105곳에 28만여명 다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끝났지만 광주·전남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국화꽃을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영정사진과 위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내와 함께 공항 내 분향소를 찾은 광주시민 양동민(56)씨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싶어 공항 분향소를 찾았다. 어린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영정사진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며 "세월호도 그렇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제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무안국제공항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에는 유족과 추모객들의 손편지도 가득했다. 이날 장례 절차

때문에 공항을 떠나는 유족들은 계단에 붙은 손편지를 읽어내리며 또다시 흐느꼈다.

5·18 민주광장에서 전일빌딩 245로 옮겨진 광주시 합동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분향소 벽에는 추모객들이 적은 문구가 포스트잇에 담겨 붙어 있었다. 추모객들은 '아름다웠던 기억들로 가득채우소서 편히 쉬소서', '나쁜 기억은 모두 다 잊으시고 행복한 기억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한 추모객은 국화꽃이 울려진 단상 옆에 어린아이가 좋아할만한 작은 사탕을 올려두고 가기도 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이재은(여·29·광주시 북구)씨는 "광주지역 희생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는 한 다리 건너면 대부분 지인이라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내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니 사고

이후 마음이 좋지 않아 주말에 시간을 내 왔다"고 안타까워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사는 이승훈(40)씨는 이날 어머니와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이씨는 분향소 앞에서 성호를 긋고 추모하고 위패에 새겨진 이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이씨는 "사고 당일 너무 많은 희생자 수를 보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대부분 우리 지역민들이라 가슴이 더 아팠다"며 "마음 속으로 잊지 않겠다고, 꼭 좋은 곳 가시라고 빌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무안공항에는 1544명, 광주 전일빌딩245에는 290명의 추모객이 다녀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전국 105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총 28만5060명의 시민이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철새 이동 길목 '흑산도 공항' 건설 백지화해야"

광주전남 환경운동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철새 이동 길목에 건립될 흑산공항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단체)은 5일 보도자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적지 않게 언급되는 상황에서 흑산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흑산도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다"며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률은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높다. 흑산공항은 무안공항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이로운한 중대 사고 발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흑산공항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 3000㎡부지에 건설되며 2027년 개항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7일부터 눈발...10일까지 1~5cm 예상

2025년을 맞이한 광주·전남 곳곳에 10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구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7일부터 본격적인 눈이 시작돼 10일 오전까지 눈과 비가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하겠다"고 5일 예보했다.

6일까지 구례 등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1cm 내외의 적은 양의 눈이 내리겠다. 7일부터 남해안

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눈이 내려 1~5cm 정도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8일부터 10일까지 구체적인 적설량이나 강수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기상청은 기온에 따라 눈이나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6도·낮 최고기온은 6~9도에 분포하겠으며,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1도·낮 최고기온은 4~7도를 보이겠다.

/장혜원 기자 hey1@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서 불...30분만에 진화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사적지(옛 전남도경찰국)에서 불이 났다.

5일 광주동부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현장 내 전남도경찰국 본관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3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열재 등이 불타 소량 추산 331만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작업자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튀어 단열재, 공사장 외벽 비계 등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추진단)은 불이난 건물과 옛 전남도청 등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간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불이난 공간은 옛 전남도청과 더불어 5·18 당시 시민군이 저항했던 거점의 하나다.

추진단 등 관계 당국은 6일 건축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거친 뒤 공사중지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개관 예정일도 당초 계획된 12월에서 미뤄질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손 손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